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 신청 받는다

군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가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중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간다.

또한 로컬푸드 인증은 농가 인증방식으로 5단계(일반, GAP,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로 구분해 신청하고 농산물과 토양시료 각 1점을 수거 분석해 해당되는 단계의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기간(2년)내 농산물에 대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 및 농산물 시료를 수거 분석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지원부이며 농가당 1만3,500원의 인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순정일 기자

전북타임스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계획

군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가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중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간다.

또한, 로컬푸드 인증은 농가 인증방식으로 5단계(일반, GAP,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로 구분해 신청하고, 농산

물과 토양시료 각 1점을 수거 분석해 해당되는 단계의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기간(2년) 내 농산물에 대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 및 농산물 시료를 수거 분석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지원부이며, 농가당 13,500원의 인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간(2년) 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제일신문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 신청 받는다

군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중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간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지원부이며, 농가당 1만3,500원의 인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증수수료

는 인증기간(2년) 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은 고품질의 책임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게 된다"며 "시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허정찬 기자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인증제' 추진

군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특히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가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임을 인정해주고 있다.

시는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중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할 방침이다.

로컬푸드 인증은 농가 인증방식으로 5단계(일반·GAP·무제초제·무농약·유기농)로 구분해 신청하고, 농산물과 토양시료 각 1점을 수거 분석해 해당되는 단계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이며, 농가당 1만 3500원의 인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군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가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중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임태영기자·kukuu79@

군산시 로컬푸드 출하농가 인증제

군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가운데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서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 및 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인증은 농가 인증방식으로 일반, GAP,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 등 5단계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전민일보

2021년 08월 26일 목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농가 '인증제' 시행

안전·신선한 먹거리 보장

군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키로 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먼저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산단계 현장심사, 잔류농약 검사, 토양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해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간다.

또한 로컬푸드 인증은 농가 인증방식으로 일반, GAP,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 등 5단계로 구분해 신청하고 농산물과 토양시료 각 1점을 수거 분석해 해당되는 단계의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기간(2년) 내 농산물에 대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 및 농산물 시료를 수거 분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은 고품질의 책임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 신청 받는다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군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가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중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간다.

또한, 로컬푸드 인증은 농가 인증방식으로 5단계(일반, GAP, 무제초제, 무농약, 유기농)로 구분해 신청하고, 농산물과 토양시료 각 1점을 수거 분석해 해당되는 단계의 인증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시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군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가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중 상반기 인증제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산단계 현장심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간다.

/군산=고병만기자

군산시, '농산물 공동 제조' 제2공장 신축 추진

군산시가 지역 농산물 공동 제조시설을 확대한다. 시는 농산물 유통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제2공장을 신축을 추진한다.

현재 공동제조시설로 운영 중인 '농부의식품공장(제1공장)'에 73농가 60품목을 생산·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작업공간 및 시설·장비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40억원을 투자해 습식가공(액상류 등)을 전문으로 가공할 2공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군산=정준모 기자